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od News &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눌린 자와 포로 된 자를 자유롭게 하여 복음을 전하라” 터키 정부, 기독교 재산 되돌려주는 ‘환속’ 조치 발표



지난 8월 28일 터키 정부가 주관한 이프타르(라마단 기간동안 해가 진 이후 금식을 마치며 먹는 음식)에 초대된 비무슬림 종교 지도자들 <출처: Today's Zaman>

기독교 유대교 등 재산 몰수 철회 ... 75년만에 단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8-19)

유럽연합(EU)가입을 희망하는 터키 정부가 최근 기독교와 유대교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되돌려주는 환속 조치를 발표했다.

오펜도어선교회는 터키 정부가 75년만에 터키와 기독교 공동체들이 몰수당했던 종교적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하는 법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터키의 레셉 타이프 에르도간 총리가 지난 8월말 이스탄불에서 161개의 소수 기관을 대표하는 비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결정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재산 귀속 조치는 터키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유럽 연합(EU)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으며, 예상외의 이번 법령은 유럽인권법정(ECHR)의 압력이 증가된 이후로 나왔다고 선교회는 전했다.

이에 따라 터키의 기독교와 유대교 공동체를 비롯, 그리스정교, 아르메니아정교, 시리아정교, 유대교 공동체 소유의 땅과 건물 등 과거에 몰수당했던 종교적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에르도간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민족, 또는 옷 입는 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억압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과거에 가해졌던 과거의 부당행위를 인정하였다. 또 에르도간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힌 터키 외무부 장관 아메트 다부토글루는 정부의 공식적인 새로운 법령은 터키 정부에 의해 제3자에게 팔린 재산의 소유주는 시가대로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라디칼 신문은 제3자에게 팔린 부동산 중에서 되찾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재무장관이 그 보상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탄불에서 환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비무슬림)소수 단체의 재산들은 현재 50개 이상의 공동묘지, 유대인 공동체의 여러 부동산, 수르프 피르키 아르메니안 병원재단과 발리클리 그리이스 병원재단 소유의 여러 건물들이라고 소식지는 전했다.

오펜도어선교회는 터키 정부와 당국이 이 법령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재산들의 반환과 함께 교회와 선교 활동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세계 교회들이 힘써 기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출처: 선교신문=종합)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12-14)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가득한 이 땅에서 터키 정부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기독교재산을 환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땅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까지 계속해서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법령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 이때에 더욱 교회가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눈물의 세월은 위로하여 주시고, 눈앞에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미 응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 이제는 선교하는 터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복음으로 이루신 이 일이 열방에 응하기까지 주의 몸된 모든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기도24-365제공]

▶ **관련기사 3면**

INSIDE



▶ **기획 4면**
사진으로 보는 복음기도신문 창간 1주년



▶ **인터뷰 5면**
“작은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학교에 참여하며’

- 고상미 선교사



창간1주년 축하메시지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을 소성케 하는 신문이 되게 하소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일-오직 그 일을 소망했고 믿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고 광야에 꽃이 피며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하늘에 화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날을!

오래 황폐 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이 폐허처럼 찢기고 상하고 척박해진 소망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예전의 아름다움으로 회복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복음이 되신 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1-3)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히 외치며 자랑하는 복음기도신문이 탄생되었고 어느덧 한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창간 한 돌을 축하합니다. 이제 복음기도신문이 수만의 독자들 과 함께 읽기 만해도 기도가 되는 세상의 뉴스들, 열방의 선교현장, 생생한 복음과기도의 증인들의 증언들을 실어 나르며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을 소성케 하며 복음기도동맹군들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이루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충직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

“가나의 혼인 잔치 포도주와 같은 신문이 되길”

유영기 교수
(복음기도선학연구소 소장)

복음기도신문 창간 일주년을 축하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난 일 년 동안 복음기도신문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자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대로 신문의 모든 내용을 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신 복음과기도 미디어 실무진과 기사를 제공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겸하여 본래 계획대로 복음기도신문이 격주로 발행되도록 재정적인 후원과 인쇄하는 일 그리고 격주로 독자들에게 전달되기 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분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기도신문은 “그 날이 오기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을 내다봅니다. “조심을 잊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기도신문이 독자의 손에 들려지고 읽혀질 때 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고 한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과 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문을 발행하는 역사가 그 날이 오기까지 계속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신문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행되는 복음기도신문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생명의떡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새로운 불을 지피라’

러시아/나데즈다 슬로보다 Nadejda Sloboda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렘 20:9

나데즈다 슬로보다는 얼마 전 유럽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된 이후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기 마을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마음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해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갈망했지만 경찰이 하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부글부글 끓는 열심을 억제할 수 없어 친구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모여들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식은 곧 당국의 귀에 들어갔다.

이에 러시아 경찰은 교회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그녀를 체포하여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그녀의 다섯 자녀들을 강제로 체육 기숙학교에 보냈다. 나데즈다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더 열심히 감방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처럼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계속 말하며 복음을 전하자 교도소 관리들은 그녀를 난방도 되지 않는 독방에 2개월 동안 가두었다. 그녀는 이불도 없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며 한겨울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맨몸으로 견뎌야 했다. 마침내 그녀가 독방 생활을 끝내고 동료 죄수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느냐고 물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웠어요.”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랬더니 사방이 따뜻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먹어도 더 알고 싶고, 영적인 열정이 천성처럼 느껴지며, 타오르는 열정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았던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믿음이 점점 차갑게 식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당신의 열정을 차갑게 진압해버린 주범은 무엇일까?

주변 사람들의 핍박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비극일 수도 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분주한 일상의 행위들이 당신 영혼에 찬물을 끼얹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성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의 영적인 열정의 화염이 지금 그늘음만 피우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열정이 낮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불을 지피고 그 불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식어버린 당신의 영혼을 뜨겁게 데워달라고 오늘 주님께 구하라!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각)

복음기도포토에세이



“오직 살아있는 진리만이 최후 결론이다”

- 죽음의 위협을 피해 숨어있던 바트부룩성에서 세상을 바꾼 성경이 번역되다

490년 전인 1521년 10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교회의 타락상을 적시한 95개조 반박문이 붙여졌다. 이후 루터는 보름스 회의를 통해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추방된다. 죽음의 위협에서 극적으로 구출을 받고 머물러 있던 바트부룩 성을 독일 땅밧기기도 여정 중 방문했다.

루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책상에서 당시 사제들이나 지식계층밖에 읽지 못했던 라틴어 성경을 일반 서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종교개혁의 원동력을 제공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냈다. 오직 살아있는 진리만이 그리스도인의 최후 결론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1:17)

글:김인애 선교사 (사진제공: WMM)

십자가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문화사역, 십자가(갈6:14)②

‘그리스도인은 왜 이 세상 문화와 관계하는가?’

십자가 주변만 맴돌던 불쌍한 자,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던 자에게 믿음이 선물로 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된 내게 세상과 문화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세상 문화와 관계할 이유는 십자가를 전달하라는 사명뿐이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 문화와 공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문화적 통로들(media)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 신격화해버린 ‘예술(art: 본래 ‘수단, 기술’이라는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다.

예술지상주의자들에게 예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해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들 편에서 신성모독이다. 명백한 이상숭배이다. 어서 속히 ‘예술’이라는 우상을 깨부수고 주께로, 십자가로 나오라!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 세상 문화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문화사역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신31:19). 문화사역이란 주님의 말씀을 대대로 증언하는 것이다. 고대 근동에서 ‘가수’는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역사가로, 전통과 신의 약속, 즉 언약을 보전하는 자들로 존경을 받았다. 성경에서 레위인은 주님의 언약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며 그들의 기업과 분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타락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 성전을 떠났다.

대학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극단적으로 자아를 추구하며 살던 불쌍한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 그늘 아래 강권하시는 은혜로 모이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님은 전부다. 영원하고 유일한 언약과 운명을 같이하며 오직 그 십자가 복음만을 무대 위, 뒤, 밖 어디서든 높이 드러내라는 사명을 받았다. 십자가 복음 외에 헛된 기대감을 허용하는 죄는 범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를 밑에다 깔아놓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 들 것이다.

“의미 없는 세상 문화와 관계할 이유는.. 십자가를 전달하라는 사명뿐”

“문화사역이란 주님의 말씀을 대대로 증언하는 것”

“영원한 문화사역.. 그것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 높이 들라, 말씀을 노래로 만들라는 지시대로 우리는 요즘 요한복음을 뮤지컬로 만들고 있다.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하루 동안 여섯 번째 1.1.1(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문화전도 프로젝트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다시복음앞에(Return to the Gospel)’ 연합집회에서 뮤지컬 요한복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만 기대한다. 뮤지컬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 복음기도동맹군들을 기다린다. 연락주시길 바란다.

사람을 흠으로 빚으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문화 사역들은 성경에 가

득하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배우’이고, 주님은 ‘비유(스토리텔링)’를 즐겨 쓰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문화사역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손을 대시고 그것을 잘라 교차시켜 십자가를 만들어 그 위에 하나뿐인 아들을 못 박아 거신다. 반역과 그에 따른 응징의 상징인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신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루셨다.

이사야 53장 10절을 크게 읽어 보라! 아들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원토록 누구도 이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막아낼 수 없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모든 원소가 불에 타버려도 이 십자가는 영원하다.

십자가는 결코 기독교의 상징이나 장식 따위가 아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요 우리가 영원히 받아 두려야할 참 복이요, 영원히 노래해야할 찬송의 제목이다. 십자가는 영원히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문화사역이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 세상 문화와 관계하는가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다.

십자가를 온 우주와 우리의 몸에, 심장과 눈동자에 आरो새겨놓으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갈6:14)

<끝>



김관영 목사 (문화행동 아트러)

열방브리핑

▶ 영국 ‘창조과학학교’ 설립 승인

최근 영국 교육부는 복음주의 계열 교회인 에브리데이 챔피언스 교회(Everyday Champions Church)가 신청한 창조과학학교 신청을 승인했다. 영국 노팅엄셔에 세워질 이 학교에서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창조론적 세계관을 교육할 예정이며,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현지 무신론 단체들은 교육부의 설립을 승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 기독교매체 SAT-7 TV, 중동 무슬림 사이에 복음 접하는 사례 증가

최근 지중해 동쪽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위성방송사 SAT-7 TV는 그들에게 전해오는 편지사연을 통해 중동 무슬림 사이에 복음을 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SAT-7에 따르면 믿기지 않는 사연을 담은 편지들이 최근 늘었고, 시청자 반응도 높아져 2년 동안 5만 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중동 국가에 기독교 뉴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독교매체인 이곳을 사이프러스와 레바논, 터키, 이집트 등에서 미디어를 제작, 이를 중동 지역에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매주 1000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채널을 고정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 몰한그릇선교회, 온두라스 정수시설 보급

오지를 찾아가 생수의 근원지인 예수님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물 한 그릇 선교회는 지난 8월초 남미 온두라스 지역에서 여름성경학교 사역과 정수 시설을 보급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산동네, 산 안토니오, 텔라 바닷가 지역 그리고 비야 비스타 산파리따의 4개 마을 등을 순회하며 그곳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동네를 방문하였다. 권종승 선교사(몰한그릇선교회 대표)는 “수질 검사 결과, 마을들의 식수는 상당히 오염되었고 박테리아가 검출되어 정수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선교사와 단기선교팀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마을의 학교를 방문, 기초를 다지고 정수기를 설치함으로써 1백여명의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자외선을 이용해 병원균을 차단하는 필터를 설치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마실 물을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단기선교팀과 함께 즉석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Dios le tomara como hijo(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라는 격려의 글을 붙여 선물하기도 했고,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공작활동과 복음영화 그리기 등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닷가 지역 ‘텔라’ 마을 교회를 방문, 물조차 없는 이곳에 우물 공사를 함으로써 화장실을 수세식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권 선교사는 이번 단기 사역을 돌아보며 “작은 고무줄 하나에도 작은 사랑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었다.”며 깨끗한 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1면에 이어 - 터키는 어떤 나라인가?

복음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있는 나라



면적 77만9천km²(7.8배)
인구 7천5백만(1.5배)
도시화 69.6%
종족 108종족 반투 66.0% 닐로
틱 29.8% 쿠시 2.7%
종교 무슬림 96.4% 무교 3.1%
기독교 0.2%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Operation World 2010>

Four comic panels illustrating cultural and religious issues in Turkey. Panel 1: A woman in a headscarf says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습니다.' (We are still hungry). Panel 2: A man in a turban says '십자가군 전쟁, 또 생각나게 하네! 열 받아!' (The cross army war, it reminds me! I'm angry!). Panel 3: A man with a bandage on his head says '복숨 걸고 믿고 있습니다.' (I believe with my mouth tied). Panel 4: A hand holds soil with a small plant, saying '주여, 이 땅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Lord, let there be a green season of Christ in this land...).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창간 1주년 기념사

- 창간 1주년에 부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

창간 기념호는 최소한의 증면이라도 있어야하지 않을까? 지난 1년간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감사의 마음을 조금만 담아도... 당초 창간 1주년을 앞둔 기획회의에서 증면발행을 전제로, 12면 발행의 지면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제작마감 당일, 그 계획은 철회됐다. 신문제작을 돕는 인쇄소측에 이같은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이번호 신문 발행면수에 변동이 없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문자를 전송함으로 증면계획은 일단락됐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간기념호=증면발행’이라는 상식인듯한 결정이 잘못이었을까? 사실, 증면이라고 해봐야 현재의 8면에서 4면 늘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제작 여건에서는 쉽지만 않은 결정이다. 마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그 어려움의 단면들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가리워졌던 빙산의 일각 이외의 실상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본격적인 마감작업 시작 무렵, 전임 사역자 한 사람의 가족상(家族喪)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겼다. 또 동역해온 연합사역을 도중에 멈출 수가 없었다. 새로운 기도정보책자 제작의 마지막 작업이 신문제작 마감과 겹친 것이다. 수천여명이 읽고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책. 전세계 10여개국에 번역돼 열방의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은 기도정보의 새로운 책자 발간일을 지켜져야 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변수가 발생하는 현실을 엄연하게 맞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땐, 붙어오는 맞바람을 온전히 맞을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상황을 떠올리는 중 불쑥 마음 속으로 떠오른

한 마디. ‘나잡아 먹고 너 살아라’ 그렇다. 어차피 신문 하나 잘 만들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다. 복음과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드러내는 미디어 사역을 위해 출범된 단체가 아닌가.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다. 그렇다면 주님이 창간기념호로 지면을 축소해 발행하게 하신다고 해도 ‘아멘’이다.

창간예비호 4호를 포함, 이번호까지 총 30호 신문이 발간됐다. 한 호에 3만부 발행되는 복음기도신문 90만부가, 독자들의 손에 쥐어진 셈이다. 전적으로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제작되고 있는 복음기도신문이 지금까지 재정이 없어서 인쇄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단 한번, 발송비가 허락되지 않아 하루 늦게 신문을 발송한 것을 제외하면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다. 흥해를 가르시고 원수의 예위쌈을 단번에 끊으시고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올랐다. 물 근원에 나아가 소금을 뿌릴 때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었듯이(왕하 2:19-21), 미디어 사역의 근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띄우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그 분의 인자하심은 선하심은 영원하시다.

지난 1년여간 복음기도신문 발행과 보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재정, 온 몸과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오신 동역자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지난 1년여간 복음기도신문 발행과 보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재정, 온 몸과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오신 동역자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획-사진으로 보는 복음기도신문

▶ 본격적인 발걸음

복음기도신문을 제작하는 복음기도미디어 사무실이 있는 요셉의창고 건물. 지난해 6월 사역설명회와 동역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신문발송작업

신문일 발간될 때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모여, 함께 발송작업을 섬기고 있다. 일일이 부수를 세어 봉투와 박스에 담아 발송된다.

▶ 신문 구독신청

각종 집회가 있을 때, 왕의 명령을 전달할 보발군의 심령으로 복된 소식을 전할 자들의 구독신청을 받는다.



“작은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학교’에 참여하며”

-아트리의아이들 두 자녀의 어머니
고상미 선교사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몹시 바쁘다. 학교와 학원에서 선생님과 또래 아이들을 통하여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대학 입시를 향해 숨 가쁘게 열려 있다.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여유도 없다. 그 현실을 알지만 부모들은 속수무책이다. 그 모습이 다수의 삶이니 그저 따라갈 뿐이다. 다들 그러니까 별 수 없다고 입을 모을 뿐이다. 신앙이 있는 부모도 그리고 신앙이 없는 부모도 그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보편성을 깨뜨리고 과감히 좁은 길에 서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학교’ 라는 이름의 작은 공동체. 현재 다섯 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극단 문화행동 아트리의 ‘노잉갯스쿨’도 그 중의 한 곳이다. 현이와 건이, 두 아들의 어머니인 고상미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 ‘노잉갯스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단원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세 가정의 다섯 아이 중에서 시작은 우리 집에서 비롯되었어요. 큰 아이인 건이가 1학년이던 이년 전,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계속 흐느끼듯 울고 있다고요. 드러나는 큰 이유도 없이 그렇게 우는 아이를 데리고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을 한 달 정도 보내었습니다. 목사님과 상의해보자, 라고 말하니 아이가 발악을 하며 요동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영적 싸움구나’ 싶은 생각이 무섭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하여 ‘학교’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학교에 가기 전 아침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을 받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점차 학교생활이 안정되어 갔고 그러자 그 간절함이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새 나는 예전처럼 아이에게 또 복습과 학습지를 강요하고 다투하면서 실제로 믿는 말씀과는 따로 가는 양육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들면서 ‘왜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과 회의와 절망이 찾아들었습니다.

그 무렵 아트리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현실을 아파하며 학교가 모든 교육의 근본이 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때가 2010년 11월이었어요.”

- 그러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군요. 정리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을 듯 싶은데요.

“세 부모가 모두 학교에 의사표현을 하러 가면서 큰 부담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의외로 각각의 교사들이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믿는 이들이 아닌데도 저마다 “맞다. 세상 교육에 희망이 없다”고 하셨지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의외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 “.....두려워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를 통하여 ‘노잉갯스쿨’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을 끊어내며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열방의 통로로 주께서 쓰실 거라는 확신을 받았지요.”

- 아이들이 다양한 학년이겠네요. 각각의 교육 일정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학교를 정리하던 작년, 6학년 아이 한 명과 3학년 두 명, 그리고 2학년과 6살짜리 아이였으니 이제 한 학년씩 높아졌지요. 처음에는 단원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각각의 도움을 받다가 공연 연습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마침 교육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오셔서 그 분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들의 일상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시간표 없이 ‘아트리’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예배에 부모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이지요.”

- 세상 사람들의 노파심에 부딪히거나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 등

의 어려움이 물론 있지요?

“우선 각 가정의 아이들 조부모님 반대가 만만치 않지요. 신앙을 갖고 있던 없던 아이들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희들이 택한 방법까지는 받아들여주시는 쉽지 않으신 것이지요. 나아가 저희들의 결론에 편견을 갖고 바라보기도 하시지요. 전세금 빠져 모여 살고 애들은 학교도 안 보내는 모습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잠깐 한 장만 바라보더라도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으로 더욱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우리 안의 조바심과 불안이 지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아래 하루에 목사님을 통해 4, 5시간씩 말씀 교육을 받은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조금씩 나아졌어요. 말씀은 익숙한데 구구단은 몰라도 되나, 6살 아이가 한글을 좀 깨쳐야 성경이라도 읽을 것 아닌가, 등등의 우려가 슬그머니 머리를 들이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의 절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 제 내면의 실체를 확인했지요.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나아졌기를 빨리 확인하고 싶고,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의 편견과 핍박을 면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행위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세상의 것보다 우월할 수 있음을 빨리 증명하고 싶은 제 마음을 깨달으며, 14절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제 부족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늘 점검합니다. 당장 보여 지는 것에 대해 매여 있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가’에 늘 붙들려 살려고 합니다.”

- 아이들을 공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로만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 결단을 행하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날마다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하니까요.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쓴 뿌리를 날마다 확신하게 되니 주님을 신뢰함으로밖에는 나아갈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이들에 대하여 말할 때 ‘아니요. 아직 부족하지요. 사실은 못하고 어려운 것이 더 많아요.’ 라고 예전에는 말했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로 겸손을 가장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깎아 내리지 말고 미리 앞서 걱정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기대한다고 늘 고백하는 그대로 이제는 주저없이 “네.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아이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선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 기독교 홈스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개개인들이 고군분투하며 몇 년간 씨름해야 하는 과정을 공동체가 함께 가니 단번에 뛰어넘은 면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맞아요. 공동체의 유익이 너무 많지요. 함께 있음으로 해서 늘 깨지고 불편하던 그 모든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 숨

길 수 없는 각자의 죄성을 늘 직면하니 십자가로만 가야하고, 그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하면서, 그 현장과 공연사역을 부모와 각 집의 아이들이 함께 하는 것이 ‘노잉갯스쿨’의 자산입니다.”

- 부모들과 아이들이 더욱 하나가 되고 있으니 아트리의 사역도 청소년 영역을 포함하면서 더 확산되고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미리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닌데 차근차근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 문화복음학교’가 1년에 2차례씩 열립니다.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는 중고생 아이들의 현실이 ‘보이는 말씀(공연)’을 통해 직면되면서 아이들은 말씀 그대로를 자기의 몸으로 부르짖고 그로 인하여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연기’나 ‘대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자기 입으로 ‘선포’하면서 고백되어지니까요. 60여명의 아이들이 결단이 이어나가 힘든 현실이 안타까워요. 3박4일의 일정이 끝나면 바로 학교생활과 함께 어려워지니까요. 문화복음학교 이후 ‘자신에게 실체가 된 복음’을 각자 집에 돌아가 부모님과 나누고 우리 단체에서 이뤄지는 ‘기도일일학교’에 참석하여 기도24365를 결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잉갯스쿨’과 함께 주께서 더욱 결속력 있게 행하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홈스쿨링 형태이지만 나아가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복음을 배우는 학교로 허락하실 것을, 영어나 수학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 주의 비전을 품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복음수련회’와 ‘왕의친구들’ 등의 타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문화학교’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음을 보면서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프로젝트로 요한복음을 그대로 보여 지는 공연으로 만든 가스펠(GOSPEL)이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강남 총신감리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헌신과 사역이 자연스럽게 다음세대를 향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극단(劇團)이기도한 문화행동 아트리의 단원은 모두 문화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이다. 남편 박계환 감독과 함께 종신 헌신한 고상미 선교사와 인터뷰를 나누면서 ‘죄가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결단과 그 위에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결국 말씀이 아이들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현실을 이루어나고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소망하게 된다.

글 사진. 허혜란 편집위원(소설가)

“다시복음앞에… 복음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

2011 하반기, 다양한 영역, 세대 대상으로 뮤지컬, 신학포럼, 말씀집회 등 열려

올 하반기 복음과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켰는지 다양한 영역, 세대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야기기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미 지난 8월 천보산민족기도원의 목회자세미나를 시작으로 복음과 기도,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행진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열리는 2011년 12월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를 앞두고 각 동맹단체들이 지역별, 영역별, 세대별로 일련의 모임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10월은 2002년초부터 복음학교를 시작으로 복음과 기도를 두 기둥으로 삼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순회선교단의 순회집회가 예정돼 있다. 6, 7일 오후 6시 대전 보문

교회에서 '다시복음앞에' 순회집회가 열린다. 문화행동 아트리의 보이는 말씀 '리턴' 공연을 시작으로 '나를 따르라'는 주제의 김용의 선교사가 메시지가 선포된다. 이어 부산집회(10.10-11), 대구집회(10.13-14), 전주집회(10.24-25), 그리고 서울집회(10.31-11.1)와 원주집회(11.3-4)로 이어진다.

11월에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중인 문화행동 아트리가 요한복음을 근거로 만든 뮤지컬 '가스펠'로 무대 위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이 단체는 지난 5년 동안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인 1.1.1 문화전도 프로젝트를 통해 복음을 선포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 복음학교를 진행해왔다. 11월12일에는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 15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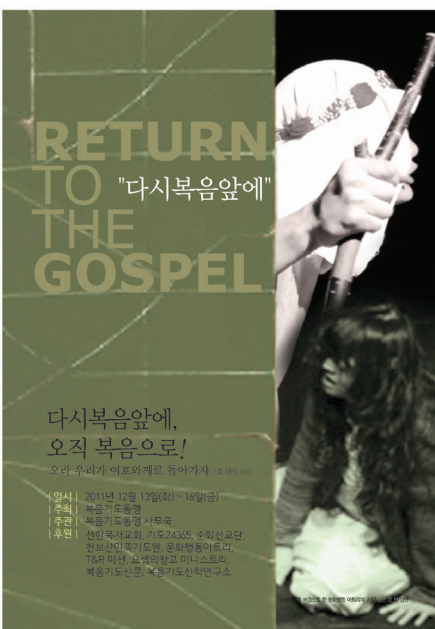
기둥 '복음'과 '기도'를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신학포럼이 복음기도신학연구소(소장 유영기 목사) 주관으로 발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12월에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열리는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열린다.

한편, 열방의 복음기도동맹군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에 기도24365본부는 중보기도자를 모은다. 준비된 잔치에 물 떠온 하인들만 알게 되는 이 자리에 무릎으로 섬길 24365기도자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기도24365 홈페이지(prayer24365.org)를 통해 신청하면 구체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2011년 하반기 복음기도동맹단체들의 집회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문의
순회복음집회 '나를따르라'	9월초부터 11월말	순회선교단 웹사이트 참조	순회선교단 032-752-4641 www.wmm119.co.kr
1.1.1 프로젝트 뮤지컬 '가스펠'	11.1(화) ~ 11.11(금) 오후 3시, 8시 (주말, 오후 2시, 7시)	충신감리교회	문화행동아트리 02-6404-9193 010-2652-4365
'다음세대 다시복음앞에 서다'	11.12(토) 오후 2시		
신학포럼 '복음과기도'	11.15(화) 오전 10시	추후 공지	복음기도신학연구소 070-7626-0501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12.13(화) ~ 16(금) 등록은 (13일) 오후 2시부터	선한목자교회	복음기도동맹사무국 070-7447-0301 010-9440-4365 www.gospelprayer.net



기도의 삶 - 나의 기도24·365

“하나님은 삶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저의 기도는 나, 내 가정, 내가 아는 누구, 문제해결과 나의 소원성취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존재가 바뀌니 기도의 영역도 지정도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열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희 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첫 생일을 지나고 난 후였고, 이때부터 아이와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찢을 먹이며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다. 찬양하는데 아기가 큰 것을 해서 치우다 보면 30분이 지나 버립니다. 다시 기도하려면 사고치는 아이의 뒷수습하기를 몇 차례, 그리고 나면 모든 기도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허무하기 그지없고, 괜히 내안에 불편한 마음과 화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이런 생각은 기도에 대한 저의 오해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나도 기도 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단은 저로 하여금 기도에 생명을 걸지 못하도록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애들이 말귀 알아듣고 글씨도 읽고 학교 들어갈 때부터 기도해야지'하며 지금의 상황과 타협하고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라는 작은 속삭임 등 제안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열방을 파수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순 더욱 없었습니다. 마음에 애통함과 좌절이 생길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요6:29)
하나님의 일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행위와 인간

의 어떠함에 달려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산 제물로 받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격려에 힘이 났고 그때부터 사단의 모든 속삭임과 참소는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제겐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의 은혜의 간증을 통한 하나님의 어머니마한 일하심과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는 제게 큰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삶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실재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말 잘하는 말재주가 아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과 갈망이 제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삶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4살짜리 둘째아이의 손목에 핀을 박아 수술해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게 하니 새벽 3시에 아이는 물을 달라고 애타게 울었습니다. '엄마 물 줘' 물 먹고 싶어, 너무 목말라' 계속 물을 찾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성경의 한 장면 부자와 나사로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심령에 부딪치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열방의 영혼들이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통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엄마로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이론이 아닌 실재로 제 가슴속에 깊이 파고들어 가슴이 멍멍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큰 아이가 등산을 갔다가 두고 온 검정 츄리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산을 올라가면서 아무리 찾아 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원이 가 입었던 그 옷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몽클 했습니다. 예원의 옷이 보고 싶었습니다. 옷에 대해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자정부터 교회에서 드리는 일일 월삭 기도회에서 복한을 순서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문득 주님이 예원과 산에 간 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은영아! 잃어버린 검정색 츄리닝 찾으러 산 정상까지 올라갔니? 잃어버린 츄리닝을 못 잊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녔던 너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 주님은 내면에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옷 하나 찾으려던 나의 모습이 주님이 열방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오버랩 되며 하나님의 마음이 제 작은 가슴에 한 없이 부어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 가슴이 터져 나갈듯 저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었던 제안에 주님의 마음이 실제로 품어지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슴 안에 있었던 영혼들, 그러나 지금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포기 하실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할 만큼 포기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은 열방의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과 한 생명으로 결합되어 있듯이 우리 주님도 열방의 모든 영혼들과 동일한 생명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운명이 되게 하신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나아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열방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임은영 선교사



순회집회“나를 따르라”광주지역 일정으로 시작

“주님께로 가는 길...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나를 따르라’란 주제로 순회집회가 지난 9월 8일~9일 광주 분향교회(담임목사 채영남)에서 열렸다. 복음기도동맹이 주최하고 순회선교단이 주관한 이틀간의 집회에 연인원 1천여명이 참석했다.

추석연휴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교복 입은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참여해,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은 연령 고하가 따로 없음을 실감케했다. 첫날은 보이는 말씀이란 시간에 문화행동 아트리(대표 김관영 목사)가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라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리턴’공연으로 시작됐다.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된 존재의 응답이자 운명적 반응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강사로 자리한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는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때, 예배에 대한 감격도 헌신도 없이 날로 세속화 되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십자가 복음에 대해 무지한 세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삼

자기를 지지 않으면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이라며, 이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이며 오직 이 부르심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그 복음, 우리의 병든 옛 자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제시하며 함께 복음 앞에 서자고 도전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한 목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호남지역에 많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며 “이 증인들과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설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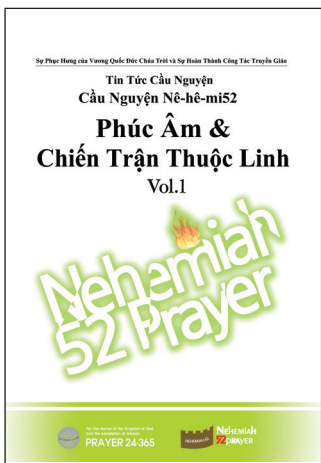
광주에서 시작된 순회집회는 11월 4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계속해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김인애 기자

한국 베트남 이주민, 느헤미야52기도 참여

-‘복음과 영적 전쟁’베트남어 번역 출간에 맞춰



‘복음과 영적 전쟁’ 베트남어 번역 출간에 맞춰 한국내 전국 25개 베트남 교회 지도자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52일간 국내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들과 유학생,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한국인 사역자들과 연합하여 느헤미야52기도를 진행한다.

기도24365본부는 베트남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채하경 선교사(양주진리교회)와 김뚜엔 전도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학생)가 베트남 성도들이 대부분 근로자적인 상황을 고려, 하루 3시간씩 52일간 연쇄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느헤미야52기도에 느헤미야(기도모임 주관자)를 맡은 김뚜엔 전도사는 “기도정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면서 새롭게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도 컸지만, 실제 기도를 하면서 얻은 은혜는 더욱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트남 본토에서도 연합된 기도의 성벽이 쌓아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느헤미야52기도 “복음과 영적 전쟁”은 현재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새로 제작되는 기도정보집 “복음의 영광”편을 통해 또 다시 열방에 기도의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순교할 상황이면 순교할 믿음주세요”

한.미.원주민 선교사와 사역자, 태평양 미전도종족 섬 선교

한국, 미국, 태평양 원주민 출신의 선교사와 목회자로 구성된 태평양 미전도종족 선교팀이 2천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미전도종족 대상의 선교여행을 앞두고 긴급 기도를 요청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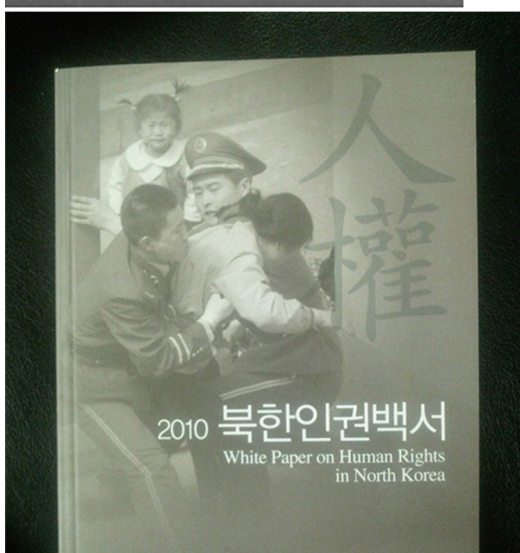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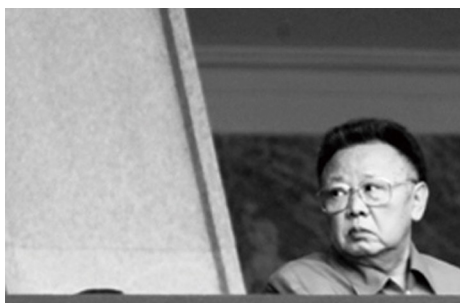
총 4명으로 구성된 이 다국적 선교팀은 포나페섬과 축섬 등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섬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일행 중 한 선교사가 본지에 알려왔다.

그는 “현재 방문 예정인 섬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으며, 단지 원주민들이 상당히 배타적이어서 외부인에 대해 총을 쏘거나 칼로 죽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신이 팽배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에서 그는 “순

교해야 할 상황이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근처에 있는 섬까지 비행기로 접근한 뒤 “정기 운항선박이 없는 목적지인 섬에는 배로 노를 저어 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이판 인근 로타섬에서 사역중인 차모로족 원주민 출신의 한 목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보호자와 방패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며 “부르신 하나님이 필요와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있으며 또 그의 선교와 계획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마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기도편지를 통해 전해 왔다.



북한, 종교 박해 2000년 이후 최악 수준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인권백서’발간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소지해도 엄하게 처벌당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려 비공개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김상헌)가 7일 발간한 ‘201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대부분 종교사범들은 정치범으로 분류되고 불법 체포, 가택수색, 실종 심지어 공개·비공개 처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백서를 분석한 이 센터의 이자은 연구원은 “북한에서 탄압을 받는 종교는 개신교와 가톨릭, 무속신앙 등이지만 가장 심한 처벌대상은 개신교와 가톨릭”이라고 말했다.

종교사범에 속하는 정치범인 경우 공개처형보다 비공개처형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2190건에 달했다. 그중 형사범 1442건(65.8%), 종교사범에 속하는 정치범 292건(13.3%) 순이었다. 반면 비

공개처형은 정치범 106건(47.7%)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형사범 75건(33.8%)이었다.

이 연구원은 “종교인의 경우 비공개 처형이 공개처형보다 더 높은 이유는 김일성이 아닌 다른 절대자를 믿는 종교 사상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서가 밝힌 관련 사례 가운데 흥미를 끄는 것은 공개처형 직전 마지막으 남기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할 때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곤 한다는 점이다. 함경북도 출신 최모씨는 “2000년 온성군 철다리 밭 총살현장에서 중국서 함께 성경공부를 했던 김모씨를 봤다”며 “그는 입에 재갈을 물고 있었는데 죽기 전 ‘주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란 말을 외친 뒤 총살당했다”고 증언했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례는 주로 불법체포, 가택수색 등의 방식

이다. 종교사범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엔 보위부에서 따로 주변인을 불러 성경책 소지 등 신앙생활 여부를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경북도 출신 박모씨는 “2005년 남자친구가 보위부에 체포됐는데 보위부가 나를 불법 체포해 무슨 관계인지, 평소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을 봤는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소리를 했는지 물어봤다”고 밝혔다. 중국인 이모씨는 2004년 성경책을 유포한 죄로 북한에 의해 구금되기도 했다.

종교박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90년대부터 사건 빈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90년대 식량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고난의 행군시기인 90년대 비법월경(탈북)이 많아졌다. 당시 중국에서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거나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존재적 죄인인 ‘저’의 실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교회는 나에게 지극지극한 가난과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의 도피처였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욕하고 돈을 흠쳤습니다. 가난한 집 구석을 피해 고1 때 가출을 했습니다. 돈을 벌해보니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돈으로 여자를 사고, 도박, 술, 담배에 빠져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오다 군대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으나 군에 가서 다시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학력을 속여 직장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성매매, 술과 도박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멀어졌고 신용불량에, 도박 빚에 이혼까지 하고 아이한테 한 번도 아빠 노릇을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인터넷 채팅과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맺으며 여전히 죄를 일삼았습니다. 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가식적으로 기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또다시 포르노와 자위행위에 빠졌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했고 정죄했으며 은혜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교회를 수없이 옮겼

습니다. 그러던 중 나처럼 이혼한 한 자매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결혼 예정이라고 하며 항상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람에게도 떳떳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서원을 하고 지난 18년 동안 죄에 찌들려 사단이 움직이는데로 이리저리 이끌려 살아온 죄인인 저에게 “죄 곧 나, 나 곧 죄!” 존재적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 속에서 죄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큰 죄를 지어 놓고도 용서 받을 것 같냐?”는 사단의 참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 앞에 나의 병든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반신반의 했던 내 모습, 그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다 사단의 참조 짓이라는 것을.

음탕, 간음, 술, 도박, 신체 훼손, 낙태, 판단, 정죄, 미움 등 생각이 나는대로 회개했지만 죄의 열매가 아닌 죄덩어리인 나를 내려놓아야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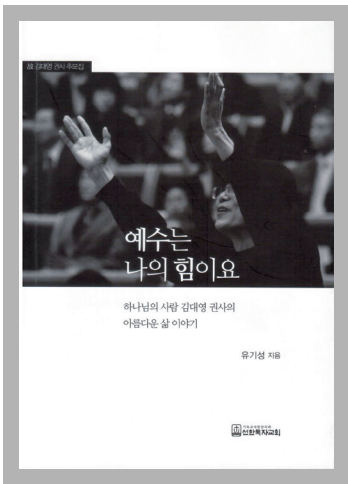
더 이상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이 전적으로 날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저의 창세전 원형의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아! 더 이상 난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맡기려 합니다. 주님의 완강한 사랑으로 날 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이제 김삼문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큰 사명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아무리 작은 자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땅 끝에서 주를 뵈겠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뵈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김삼문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죽어도 살 것’이라는 담대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선포하던 사람



- 고(故) 김대영 권사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일 년 전, 복음 안에서 형제 된 한 분이 소천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랑하던 김대영 권사.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에게서 유명한 업적도, 대단한 사역 열매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런 그의 삶을 추모하는 작은 책자 한 권이 발간됐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가 바로 그 책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저자 유기성 목사의 집필로 발간된 이 책 머리에 저자는 “사람들이 많아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사귀었던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 한 복판에서 방황하다 외도현장에서 마리아처럼 용서받은 특별한 경험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의 삶은 이후, 180도 달라졌다. 저자는 그 무렵 처음 그를 만나 그리 길지 않은 10년간의 삶을 지켜보던 중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소천하기까지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을 1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소책자 안에 담아놓았다.

주님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이랬다. 재

정적으로 너적할 때나 쌀 한 톨 없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건강할 때나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몸도 가누지 못한 때에도 변함없이 그는 주님만 믿고 따라갔다. 한국의 나환자촌과는 달리 음성, 양성자의 구분 없이 환자를 방치해 감염 위험이 있는 중국 나환자촌에 들어가 그들의 용변처리는 물론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는,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섰다. 자신의 몸도 가누 수 없는 처지에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염려 반 비난 반의 시선에도 그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아멘하고 걸어들었다.

복음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늘 그랬다. 자신의 상황보다 주님의 허락하심을 바라보고 허락하신 곳이 어디든 밀알로 썩었다. 병이 걸린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죽어도 살 것’이라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찾아가 오히려 영원한 천국을 전했다.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만났길래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김대영 권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떠올린다. 이 책을 정리하며, 너무 짧게 살다 본 향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아쉬움보다 여전히 그의 믿음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주고 있는 메시지를 되새기게 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히 11:4)”

그가 살아 생전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가야 할 것이다. 믿음의 싸움을 마치기까지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것이다. 이 책은 그가 사랑하고 경비로도 일했고 그래서 그의 삶을 가장 많이 보았던 모(母)교회에서 그를 추모하며 발간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 유기성 지음 | 105 쪽 | 선한목자교회 제자훈련국

Y.D



단체명일복음과기도 미디어로변경

본지를 발간하는 단체명 ‘GN미디어네트워크’가 최근 ‘복음과기도 미디어(Gospel Prayer Media)’로 변경됐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타 단체와 동명인 관계로 부득이 단체명을 변경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복음기도신문을 인터넷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복음기도신문 웹사이트 <http://gnpnews.tistory.com>
페이스북/facebook <http://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후원자 명단

(2011년 8월 26일 ~ 9월 15일, 가나다 순)

△개인

김기석 김남분 박수석 박태일 유자인 이란영 이민자 이철옥 이창기 이흥범 임재아 지병용 천자영

△교회

국제선교교회 기쁜우리교회 서울제일교회 순복음빌라텔비아교회

복음기도신문은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동역자들의 헌금과 기도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기사제보·구독·헌금·동역문의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향동7가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서안묵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